

서부권



일본 상선미쓰이객선(商船三井客船) 소속 크루즈여객선 '니쁜마루'호(2만2천t급)가 지난달 31일 일본인 관광객 400여 명을 태우고 목포 삼학도항에 입항했다. (목포시 제공)

日관광객 400명 싣고 왔어요

■크루즈선 '니쁜마루'호 목포 삼학도항 도착

전남도 관광상품 개발…5월엔 美크루즈 입항

목포와 여수, 광양 등 전남지역 주요 항구에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크루즈 여객선이 잇따라 입항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 (주)상선미쓰이객선(商船三井客船) 소속 2만2천t급 '니쁜마루'호가 일본인 관광객 400여 명을 태우고 지난달 31일 목포 삼학도항을 거쳐 1일 광양항에 입항한다.

일본 관광객들은 목포와 광양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목포

역과 광양 종마시장 쇼핑, 지역 특산품인 김, 미역, 건어물, 청매실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5월에는 미국 선적 1만t급 크루즈 '씨번프라이드'호가 여수항과 목포항에 각각 4차례 입항하기로 하는 등 도내 항구에 크루즈 여객선들의 입장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지역에 입항한 크루즈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목포항과 여수항을 기항지로 총 9차례 들어왔으며 이중 니쁜마루호는 2005년부

터 올해까지 5차례 입항했다.

전남도는 입항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입국 수속(CIQ) 유관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남도역사·문화·예술, 음식, 생태관광지 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F1내회·여수엑스포 등과 함께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에는 일본 크루즈 선사와 함께 한일해협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5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오사카 투어 엑스포 2010'에 참가하며,

6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 아이디어' 목포시 28일까지 공모

목포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목포시는 산업경제·관광레저·문화·예술·교육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접수해 시책화함으로써 행정

의 실수요자인 시민의 욕구를 행정에 반영해 '정책 프로슈머 시대, 시민 눈높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목포시민제안 코너에 등록하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로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5월중 심사를 거쳐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채택 실행 할 계획이다. 시는 우수 제안에 대해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노력상 5만~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문의(061-270-8607)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전복·다시마·광어 등 완도 지역 특산물 판촉

8일~11일 광주서 큰 장터 연다

완도군이 전복·다시마·광어 등 지역 특산물 판촉에 밟았고 나섰다.

완도군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에서 열리는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한마당 큰잔치'를 시작으로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본격적인 완도 특산물 판촉 활동에 나선다.

군은 10일 오후 2시 롯데마트 측과 판매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마당 큰잔치에서는 전복·광어회와 김·미역·다시마 등 완도산 명품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부대행사로 멀거리 장터 및 농·수산물 전시관, 완도관광홍보관, 재래 김 만들기 체험장 등이 운영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새마을부녀회와 아파트 부녀회원 40여 명을 초청해 완도 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팬투어를 실시했다. 부녀회원들은 전복 최대생산자인 노화읍 전복체험장을 방문해 전복의 성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도 관광지를 둘러봤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진도 토요민속공연 8개월 대장정

3일 명창 초청·농악·사물놀이로 개막

진도 토요민속공연이 오는 3일 첫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8개월 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개막 공연은 '흙과 소리 그리고 풍요'라는 주제로 진도군 지산면 출신 신영희 명창 초청공연을 비롯해 농악·사물놀이, 진도 북놀이, 진도아리랑 어울마당 등 신령 나게 펼쳐질 예정이다.

진도의 무형 문화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할 토요 민속공연은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오후 2시 진도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10일에는 '남도의 흔'을 주제로 흥그레 타령, 남도민요, 판소리 '춘향이집 찾아가는 대북' 등이 공연되며 17일에는 '남도의 신명'을 주제로 진도북놀이와 진도 아리랑 등을 선보인다. 4월 마지막주인 24일에는 '굿판'을 주제로 췄김굿, 판굿 등이 펼쳐진다.

지난 1997년 시작된 토요 민속공연은 그동안 440회를 실시해 21만명이 다녀가는 등 명실상부한 문화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함평 나비대축제 22일까지 입장권 예매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17일 동안 열리는 '제12회 함평 나비대축제' 입장권 사전예매를 22일까지 실시한다.

입장권 사전예매는 주티켓링크(1588-7890)와 함평군 축제추진위원

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는 티켓링크(ticketlink.co.kr)에 접속하면 된다. 사전 예매로 구입하면 10% 할인된다. 문의(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061-320-3733).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목포해양대학교 개교 60주년

3일 학생·교직원·동문 축제한마당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안영섭)가 오는 3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축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과 교직원, 동문, 주요 외빈을 초청해 '대학 60년사' 발간 증정식과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학구성원과 동창회 및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학교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목포 해양대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대학발전에 공헌한 동문 9명에게 '자랑스런 목포 해양대인상'이 수여된다.

한편 목포해양대는 지난 1950년 4월 문을 연 목포수산상선학교를 모체로 1973년 목포 해양전문학교로 변경됐고 1993년 4년제 목포해양대학으로 개편됐다. 현재 2개 대학원 석·박사과정과 2개 계열(해사·해양공학계열) 4개 학부 16개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함평군 민관 에너지 10% 절감 총력

극 펼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속 에너지절약 5대 중점 실천과제'로 ▲자전거 타기 ▲가로등 격등제 ▲자동차 급출발·급제동 줄이기 ▲내복입기 등을 생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사회단체는 ▲차량 요일제 준수 ▲청사복도와 창족 조명끄기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전원 플러그 뽑기 등 3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 ▲가전제품 일괄 사용 ▲적정 냉·온방 온도 지키기 등을 적

극 펼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은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내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해 8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민원 경쟁부동산의 빠른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법정보관 노력